

滿開만개	하여가와 단심가	출판사	디딤김
		단원	2-1
		이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하여가(何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이방원</p> <p>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첩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p>단심가(丹心歌)</p> <p style="text-align: right;">정몽주</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닢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

1. 다음 시조 두 편의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상 1수로 된 단시조이다.
- ② 3장 6구 12음보로 되어 있다.
- ③ 시대상 고려 말에 지어진 고전 시조이다.
- ④ 우회적 표현의 시로, 기본 형식의 평시조이다.
- ⑤ 각 장은 4음보이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2. ‘하여가’를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정몽주의 회유를 거절하기 위해서
- ②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 ③ 함께 조선 왕조를 건설하자고 회유하기 위해서
- ④ 두 왕조를 섬기지 않으려는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 ⑤ 현실의 이익보다는 명분을 신념과 명분을 중시하기 위해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하여가(何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이방원</p> <p>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첩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p>단심가(丹心歌)</p> <p style="text-align: right;">정몽주</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닢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

3. 다음 시조 두 편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 ② 반복법, 점층법 등의 표현이 쓰였다.
- ③ 기본 형식의 평시조이며 정형시이다.
- ④ 각 장은 3음보이며, 3장 5구 12음보이다.
- ⑤ 시대상 고려 말에 지어진 고전 시조이다.

4. ‘단심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정몽주에 대한 설득을 한다.
- ② 시류에 영합하는 삶을 권유한다.
- ③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드러난다.
- ④ 부드러운 화자의 어조를 바탕으로 태도가 드러난다.
- ⑤ 화자를 통해 자연 속의 호방한 생활 태도가 드러난다.

5. '하여가'에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이련들 ② 만수산 ③ 드령츨이
- ④ 어떠하리 ⑤ 우리도

6. 문학 작품에 드러난 현실의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한다.
- ② 인물의 처한 상황과 처지를 파악한다.
- ③ 인물이 주어진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을 파악한다.
- ④ 작품 속의 세계와 독자가 처한 현실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 ⑤ 작품에 드러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작가의 창작 동기를 파악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하여가(何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이방원</p> <p>이련들 어떠하며 저련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츨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p>단심가(丹心歌)</p> <p style="text-align: right;">정몽주</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	--

7. ㉠이 가리키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
- ② 조선을 건국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현실의 이익보다 명분과 신념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
- ④ 정몽주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 ⑤ 이방원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8. 위 두 시조가 지어질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 ② 새로운 왕조 건국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기
- ③ 새 왕조를 세우자는 사람들과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하던 시기
- ④ 조정 대신들이 백성들의 삶을 보지 않고 당과 싸움만 일삼아 민란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
- ⑤ 무고한 모함을 받게 된 강직한 선비들이 억울함을 국왕에게 호소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하여가(何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이방원</p> <p>이련들 어떠하며 저련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츨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p>단심가(丹心歌)</p> <p style="text-align: right;">정몽주</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	--

9. '하여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종장에는 설의법을 사용하였다.
- ③ 초장과 중장에는 반복법이 쓰였다.

- ④ 현실의 이익보다는 신념과 명분을 중시한다.
- ⑤ 서로 함께 뜻을 모으는 모습을 칩덩굴이 얽혀진 것에 비유하였다.

10. 다음 두 시조를 낭독할 때 끊어 읽기를 잘못된 것은?

- ① 이런들 / 어떠하며 / 저런들 / 어떠하리.
- ② 만수산 / 드령츰이 / 얽혀진들 / 어떠하리.
- ③ 우리도 / 이같이 얽혀져 / 백년까지 / 누리리라.
- ④ 이 몸이 죽어 / 죽어 / 일백 번 / 고쳐 죽어.
- ⑤ 백골이 / 진토(塵土)되어 / 뉘이라도 / 있고 없고,

11. '단심가'에서 주제를 잘 드러내는 핵심어를 찾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하여가(何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이방원</p> <p>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츰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p>단심가(丹心歌)</p> <p style="text-align: right;">정몽주</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12. ㉠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②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 ③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④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 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13. '하여가'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 ② 회유적 ③ 설득적
- ④ 의지적 ⑤ 우의적

14. 두 시조를 읽고 난 학생들의 대화이다. 바르게 말한 학생은?

- ① 정은: '하여가'에서는 직설적 표현이 드러나.
- ② 민경: 두 시조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고전 시조야.
- ③ 윤주: '하여가'에서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이야기 하고 있어.
- ④ 동구: '단심가'에서는 명분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따르고자 해.
- ⑤ 승현: '단심가'는 초장과 중장에는 반복법, 종장에는 설의 법이 사용되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가) 하여가(何如歌)</p> <p style="text-align: right;">이방원</p> <p>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츰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p>(나) 단심가(丹心歌)</p> <p style="text-align: right;">정몽주</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5. (가)에 드러난 화자의 삶의 자세로 알맞은 것은?

- ① 자연을 벗하며 살아간다.
- ② 신념과 명분을 중시한다.
- ③ 고려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고자 한다.
- ④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닦는다.
- ⑤ 명분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따르고자 한다.

16. (가)의 화자가 권유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상대방에게 영합을 권유하고 있다.
- ②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상대방에게 영합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상대방에게 영합을 권유하고 있다.
- ④ 비유를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에 대한 영합을 권유하고 있다.
- ⑤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에 대한 영합을 반 강제로 권유하고 있다.

17. '단심가'를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조선 왕조를 건설하기 위해
- ② 현실의 이익에 따르기 위해
- ③ 고려에 대한 충절은 지키기 위해
- ④ 이방원을 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 ⑤ 시류에 영합하는 삶을 권유하기 위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궤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
---	-----

단심가(丹心歌)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8. 두 작품의 역사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작가의 대응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 조선을 건국하고자 한다.
- ② (나): 고려를 침략하고자 한다.
- ③ (가): 고려의 국운 회복에 힘쓰고자 한다.
- ④ (나): 조선의 국운 회복에 힘쓰고자 한다.
- ⑤ (가),(나): 고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약속한다.

19.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은?

- ① 나와 뜻을 함께 할 것
- ② 고려 왕조를 함께 지킬 것
- ③ 이성계와 자신을 도와줄 것
- ④ 조선 왕조 창업에 함께할 것
- ⑤ 새로운 나라는 세우는 데 동참할 것

20. 두 시조를 읽고 난 학생들의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엽: 이방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조선 왕조 건설을 생각하고 있어.
- ② 희열: 그와 반대로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신념을 지키고 있어.
- ③ 동물: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심을 약속하지만 고려가 망하면 조선 건국에 도움을 줄 거야.
- ④ 승환: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우회적이고 은근한 어조를 통해 상대방을 떠보고 있는 중인 것 같군.
- ⑤ 동환: 반면 정몽주가 직설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이는데.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fa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하여가(何如歌)</p> <p>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썰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이방원
<p>단심가(丹心歌)</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낮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정몽주

21.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두 시조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② ‘단심가’는 반복법과 점층법을 사용하였다.
- ③ ‘하여가’는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시조다.
- ④ ‘하여가’는 설득하는 언어 표현이 뛰어나다.
- ⑤ ‘단심가’는 거절의 의사를 부드럽고 차분하게 드러내었다.

22. 위와 같은 글과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문학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다룬다.
- ② 작품을 이해하는데 시대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 ③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같다.
- ④ 작품이 창작된 시대를 알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⑤ 작가를 알 수 없으면 작품의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23. 두 시조의 작가가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상상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방원: 내 뜻에 동참하여 새 시대를 열어 봅시다.
- ② 정몽주: 저는 고려의 신하이니,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 ③ 이방원: 조선 건국에 협조한다면 나도 고려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④ 정몽주: 고려가 망하여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⑤ 이방원: 그렇게 말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고려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하여가(何如歌)</p> <p>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①만수산(萬壽山) 드령썰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p>	이방원
<p>단심가(丹心歌)</p> <p>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낮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p>	정몽주

24.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내재율에 속한다.
- ② 산문에 가까운 형태이다.
- ③ 형식상 갈래는 자유시이다.
- ④ 초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 ⑤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갖는다.

25. ㉠은 ‘송악산’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가 ‘송악산’ 대신 ㉠을 사용한 이유로 바른 것은?

- ① ‘만수산’은 고려에 대한 충심을 연상하기 때문
- ② ‘만수산’은 지조를 지키는 삶을 연상하기 때문
- ③ ‘만수산’은 소나무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
- ④ ‘만수산’에는 만수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
- ⑤ ‘만수산’은 조선에 대한 변치 않는 충심을 연상하기 때문

26. '단심가'에서 화자의 의지가 집약적으로 표출된 단어를 찾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첩이 엷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엷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丹心歌)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녀이라도 있고 없고, ㉠입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 정몽주
--	--

27. '하여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근한 어조로 상대방을 떠보고 있다.
- ②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지은 시조이다.
- ③ 조선 왕조 건설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 ④ 작가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다.
- ⑤ 정몽주의 '단심가'에 대한 화답의 시이다.

28. ㉠의 시구가 가지는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저의 억울한 점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 ② 날 버리고 가시는 임은 원망스럽습니다.
- ③ 사랑하는 임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 ④ 고려에 대한 저의 충성심은 변함없습니다.
- 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29. 두 시조의 작가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이방원- 조국에 대한 충성
- ② 정몽주- 동료에 대한 의리
- ③ 이방원- 새로운 세상 만드는데 힘씀
- ④ 정몽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 ⑤ 이방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못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첩이 엷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엷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
---	-----

30. 이 글의 화자가 권유하는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알맞은 것은?

- ① 소년은 개울가에서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소녀를 그리워하였다.
- ② 이습우화의 박쥐는 길짐승과 날짐승이 싸우자 이길 것 같은 편에 붙는다.
- ③ 홍길동은 호부호형 하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탄하였다.
- ④ 이육사는 일본 헌병이 고문을 할 때 “너희들이 나를 고문해서 내 육체를 으스러뜨릴 수 있을지라도 내 정신만은 어찌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 ⑤ 왜국의 왕이 박제상에게 나의 신하가 되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고 구슬렸으나 박제상은 “차라니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라고 버텼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31.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직설적 ② 의지적 ③ 우의적
- ④ 여성적 ⑤ 민요적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pa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여가(何如歌)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췌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丹心歌)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췌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丹心歌)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32. 두 시조를 읽을 때 독자가 알아 두어야 할 배경 지식으로 알맞은 것은?

- ①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모습
- ② 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모습
- ③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대 상황
- ④ 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과 조선의 건국
- ⑤ 6.25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의 혼란한 모습

33.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어떠하냐? 라는 뜻의 한문 어구
- ② ㉡: 개성에 있는 송약산의 다른 이름
- ③ ㉢: 단절된 마음
- ④ ㉣: 죽은 사람의 살이 다 썩은 뒤에 남는 흰 뼈
- ⑤ ㉤: 티끌과 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여가(何如歌)

34. 두 시조의 갈래로 알맞은 것은?

- ① 평시조 ② 연시조 ③ 엷시조
- ④ 현대시조 ⑤ 사설시조

35.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면 어느 왕조든 상관 없지 않느냐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② ㉡: 췌덩굴이 얹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얹혀진 인생을 풀어보자는 의미이다.
- ③ ㉢: 이 몸이 죽어서도 변함없는 절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법과 점층법이 쓰였다.
- ④ ㉣: 죽어서 육신이 먼지와 흙이 되고, 또 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 ⑤ ㉤: 고려 왕조 또는 공양왕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6. 두 시조에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찾아 쓰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엔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아져 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가 시려온다.

(나) 만도는 물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의춤을 풀어헤쳤다. 오줌을 찌익 갈기는 것이다. 거울 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우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회 쳐 놓고 한잔 쭈욱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기 떼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 던지고, 그는 외나무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다리를 꼭 조심했다.

(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 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다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독에 넣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져 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앞에 드러내 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물이 선뜩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 붙는 사타구니계를 한 손으로 짊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별름거렸다.

41. 위 글에 나타난 만도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소탈하고 낙천적이다.
- ② 단순하고 몰상식하다.
- ③ 차분하고 지성적이다.
- ④ 겁이 많고 소극적이다.
- ⑤ 세심하고 다정다감하다.

42. (가)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 서술한 효과로 알맞은 것은?

- ① 향토적 정감이 느껴진다.
- ②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 ③ 만도의 내적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④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 ⑤ 희극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순박한 성격을 드러낸다.

4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젖은 옷차림으로 다녀야 하므로
- ②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 ③ 불구가 된 몸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어야 하므로
- ④ 누구나 쉽게 건너는 외나무다리에서 바로 떨어졌으므로
- ⑤ 술을 먹고 실수한 것이 알려지면 놀림을 당할 것이므로

44. 위 글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길이 나온다. 도로변에 먼지를 부영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 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 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느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 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 있고, 방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리기로 하

였다.

신작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의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 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깁죽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45. 위 글에서 ㉠와 같은 호칭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근감의 표현이다.
- ② 동정심의 표현이다.
- ③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다.
- ④ 상대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 ⑤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이다.

4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소화가 잘 된다.
- ② 언짢은 마음이 풀린다.
- ③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된다.
- ④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된다.
- ⑤ 거북하던 쓰린 속이 가라앉는다.

47.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다.
- ② ㉡ : 만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공간이다.
- ③ ㉢ : 들을 이룬 넓은 벌판이라는 뜻이다.
- ④ ㉣ : 큰 것과 작은 것을 합한 것을 말한다.
- ⑤ ㉤ : 만도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다.

48. 위 글에서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 드러난 문장을 찾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끄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나)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언저리를 아무렇게나 훑친다.

“마, 아무데서나 목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 주소.”

“야”

“곱빼기로 잘 줌……. 참기름도 치소, 잉?”

(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똥기우똥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라)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마)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49. 위 글에서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거두고 있는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을 긴밀하게 한다.

- ② 사건의 현장감을 살린다.
- ③ 향토색을 두드러지게 한다.
- ④ 인물들의 순박한 성품을 나타낸다.
- ⑤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50.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괴로운 심리를 표현하였다.
- ② ㉡ : 만도의 분노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 : 아들의 처한 현실을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 ④ ㉣ : 아들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 ⑤ ㉥ : 만도와 아들, 즉 부자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51. 글쓴이가 위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대 간의 갈등 극복
- ②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촉구
- ③ 민족의 수난과 그 극복 의지
- ④ 민족 분단의 해결 방안 제시
- ⑤ 전쟁의 비극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52. (나) 단락에서 만도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찾아 처음과 끝 어절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갯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빠근했다.

(나) ‘삼대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야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맷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맷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맷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처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불기썩이나 장판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런 놈이 견뎌 냈을 턱이 없고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다.

(다)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인데…….’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면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53. 글 (나)에서 드러나는 만도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 ② 아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
- ③ 매사에 쓸데없는 잔걱정이 많다.
- ④ 자신의 처지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다.

54.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만도는 진수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 ② 진수와 만나게 된 만도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 ③ 만도는 진수를 만나러 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였다.
- ④ 만도는 진수가 자신처럼 장애를 가지게 될까 봐 걱정하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 ⑤ 만도는 진수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5. 위 글의 제목은 '수난 이대'이다.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전쟁 다음 세대에까지 수난을 주는 전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수난에 대한 진수와 만도 부자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 ③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 부자의 수난을 담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수난을 안겨 주는 진수와 만도 부자의 악행을 제시하였다.
- ⑤ 앞으로 다가올 수난에 미리 준비하는 진수와 만도 부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56.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것은?

<보기>

문학은 현실의 모습을 작품 안에 담아낸다. 그러므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을 사회와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만도가 진수에게 하는 말을 통해 만도의 긍정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주막에 도착하기 전과 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였다.
- ③ 만도의 현실 대응 방법을 통해 독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④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진수는 6·25전쟁 때의 수많은 상이군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 ⑤ 수난을 당한 부자를 그려 내기 위해 작가는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를 창조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끄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 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려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다)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도, 첫째 걸어 땀기기가 불편해서 툭 죽겠심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땀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렇까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땀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5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이다.
- ② 부자(父子)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감정이 개입된 주관적인 서술이다.
- ④ 두 인물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어있다.
- ⑤ 한가롭고 여유로운 도시의 정감 어린 풍경이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58. 글 (나)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사용되었다.
- ②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이 변화하였다.
- ③ 상대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가 달라졌다.
- ④ 인물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 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다.

59. 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만도는 진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 ② 만도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 ③ 만도는 진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 ④ 진수는 만도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진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60. 위 소설을 광고하려고 할 때, 그 문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언제나 그림고 정감이 넘치는 부자 이야기
- ② 우리 전통 먹을거리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한국
- ③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 ④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 ⑤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수난을 겪는 순박한 사람들의 이야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도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중략> ‘㉠삼대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야 되지 않았겠지. <중략>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저만큼 높이 쳐다보였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켜걸음쳐 나가다가 개천 독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었다.]

(나) ㉣**신작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싫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의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 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깻죽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여서는 수밖에 없었다.

(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꼭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도 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치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백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중략> 징용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삼사 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라)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흑이 된 자리를 벽벽 긁으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 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빠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중략> 그 순간이었다. 팡!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중략> 재차 눈을 떴을 때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깻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서됐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61.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 ②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재구성한다.
- ③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당시 사람들의 고민과 생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역사적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62. ㉠에 담긴 만도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슬픔 ② 분노 ③ 기쁨
- ④ 서운함 ⑤ 안타까움

63.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진수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다.
- ② 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려고 샀다.
- ③ 정거장 쪽의 반대방향에 있는 장에서 샀다.
- ④ 아들에 대한 만도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한쪽 팔이 없는 만도의 신체적 처지를 부각시킨다.

64. ㉡~㉣ 중 만도에게 과거를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알맞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65. ㉤ 부분은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2개)

- ① 진수가 이미 도착했음을 알려 준다.
- ②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 ③ 이 마을은 내리막길이 많음을 드러낸다.
- ④ 만도가 어려움 없이 살아왔음을 나타낸다.
- ⑤ 만도의 들뜬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악’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

고, 한쪽 어깨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꽤애액-

기적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 들었다.

(나)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질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기 무슨 풀이고, 이기?”

“아부지” /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 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피뚝뚝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 마디를 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다)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중략>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중략>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 보고 있었다.

66. 이와 같은 글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은?

- ① 글쓴이의 개성을 살피기 위해 읽는다.
- ② 주장이 타당한지 살피기 위해 읽는다.
- ③ 글 속에 내재된 운율을 음미하며 읽는다.
- ④ 대상에 따른 설명 내용을 메모하며 읽는다.
- ⑤ 등장인물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살피기 위해 읽는다.

67.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수빈 : 만도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
- ② 아영 : 사투리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 ③ 세리 :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6·25 전쟁의 아픔이 드러나 있어.
- ④ 가은 : 전쟁을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삶이 파괴된 인물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
- ⑤ 지윤 : 용머리재가 만도 부자를 지켜보고 있다고 의인화하여 결말에 여운을 더하고 있어.

68. 이 글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 ① 이산가족의 아픔
- ② 전쟁의 상처와 그 극복
- ③ 전쟁 후의 비참한 생활상
- ④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 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6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만도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 ② ㉡ : 전지적 작가 시점의 표현이다.
- ③ ㉢ : 실제로는 불행한 현실에 대한 원망이다.
- ④ ㉣ : 아들의 부주의에 대한 강한 비난이다.
- ⑤ ㉤ : 아버지에게 면목 없고,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땡땡땡 종이 울리자,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면 서 들이닥쳤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펑펑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험사리 눈에 띄지가 않았다. 저쪽 출입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지 않았다.

(나)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다)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꿈꾸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중략>

앞서 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 놓고, 한쪽 손으로는 불 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동치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이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으음!’ 하고 신음 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라) “마, 아무데서나 묵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 주소.”

“야.”

㉤“곱빼기로 잘 줌……. 참기름도 치소, 잉?” <중략>

“한 그릇 더 묵지, 와?” / “고만 묵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짹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가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똥기우똥 앞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곧장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도의 뺨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훌훌 내뿜어 본다.

되어 직접 전투에 참가하거나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70. 만도가 상이군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 ① 진수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 ② 상이군인의 모습이 진수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 ③ 상이군인은 진수보다 훨씬 나이가 적어보였기 때문에
- ④ 진수가 타고 온다는 열차에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 ⑤ 상이군인은 이미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71. (라)에서 만도가 주막을 올 때와 달리 진수를 앞세운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진수가 먼저 간다고 말해서
- ② 자신은 다른 곳에 가야 돼서
- ③ 진수에게 자신의 뒷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 ④ 진수가 다리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 ⑤ 주막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므로

72.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었음을 나타낸다.
- ② ㉡ : 진수를 보고 충격을 받음을 드러낸다.
- ③ ㉢ : 집으로 가는 길이 멀어서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 : 불구가 된 진수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힘든 만도의 심리가 담겨 있다.
- ⑤ ㉤ : 진수를 사랑하는 만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

73.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수난시대' 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보기>

우리의 근현대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비행장, 항만, 터널, 군수 공장, 탄광 등을 건설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광복을 맞은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편입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니, 우짜다가 그래 댕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됐습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디.”

“㉠수류탄 쪼가리에?” / “예.” <중략>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디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 댕기기가 불편해서 툭 죽겠심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렇까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댕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 주었다.

(나) 개천 덕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까.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다)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

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얹힌 진수는 끈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왔을 낀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 눈앞에 우뚝 솟은 ㉔용머리재가 ㉓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74. 만도가 진수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뽕 먹고 알 먹고 등지 털어 볼 땀다.
- ②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 ③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④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
- 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5. 다음 <보기>의 글에 해당하는 소재는?

<보기>

문학 작품에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의 인물들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㉑ ② ㉒ ③ ㉓
- ④ ㉔ ⑤ ㉕

76. ㉓에 쓰인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 ②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오오.
- ③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④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 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한 자옥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77.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독립 운동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음
- ②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 ③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의 삶을 엿볼 수 있음
- ④ 아버지와 자식의 2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음
- 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현대의 수난사를 그리고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갯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필럭거리고 허벅지가 빠근했다.

(나)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빠익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 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었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뻐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만도는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짚 누르면서 뽕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간다.

(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있는 것이다.

‘삼대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옹고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야 되지 않았겠지.’

(라)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맷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맷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맷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달렁 처져 있는 것이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불기짜이나 장판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런 놈이 견뎌 냈을 턱이 없고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다.

78. 위와 같은 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실존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 ② 언어 예술로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이다.
- ③ 시대적 상황이 글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이다.
- ⑤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꾸며 낸 이야기이다.

7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만도가 가고 있는 곳은 기차 정거장이다.
- ② 만도는 아들 도착 시간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있다.
- ③ 만도는 왼쪽 팔이 없는 불구의 몸임을 알 수 있다.
- ④ 6·25 전쟁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이다.
- ⑤ 만도는 아들이 자신처럼 불구의 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80. 위 글에 드러나 있는 만도의 심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기쁨 ② 반가움 ③ 뿌듯함
- ④ 불안감 ⑤ 즐거움

81. (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니리]

홍보도 절굿대 춤을 한번 추면서, “참 열녀(烈女)다 열녀, 백녀다.”

“여보 영감 이리저 말고 건넌말 시숙한테 건너가서 죽게된 자식 사정을 여쭙어 놓면 다소간 전곡간(錢穀間)에 줄 것이니 한 번 건너가 볼라요?”

“내가 만일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마는 보리를 주면 어찌꺼나?”

“아이고 여보 영감 없이 사는 살림에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아 이 사람아 먹는 보리 말고 몽둥이 보리 말이여”

“형제간 윤기(倫紀)가 있는디 그럴 리가 없으니 한 번 건너가 보오.”

홍보가 치장을 차리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데,

(나)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떨어진 헌 파립(破笠) 버릿줄 총총 매여 조새 갓끈을 달아서 떨어진 헌 망건(網巾) 발풀 관자(貫子) 종이 당줄 두통나게 즐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놀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아침 찬바람에 옆걸음쳐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다) [아니리]

건너가다 놀보 하인 마당쇠를 만났졌다.

“아이고, 작은 서방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너도 잘 있었으며 요새 큰서방님도 성미는 좀 어찌시냐?”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제향을 모셔도 포군을 시키드니마는 서방님이 떠나신 후로는 그냥 대전(代錢)으로 바칩니다. 집시에다 이것은 편육이라 이것은 제육이라 패지를 써 붙이지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매만 실컷 맞고 갈 것이니 그냥 도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아니 보고 간대

서야 인사도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홍보가 성큼 성큼 놀보 사랑 앞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소인 놈 문안이요.” “예, 저 성씨가 뉘댁 이시오.”

“아이고 형님 홍보 동생을 모르시오?”

“예, 나는 오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요.”

(라) [자진모리]

놀보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우에 번 듯 들고, “네 이놈 홍보놈아! 잘 살기 내 북이요, 못 살기는 니 팔자, 굵고 벗고 내 모른다. 벗섬 주자현들 마당에 두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혈며 전곡(錢穀)간 주자현들 천록방(天祿房) 금궤 안에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때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궤돈 혈며 찌갱이 주자현들 구진방(舊陳房) 우리 안에 때 돼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돌 굵기며 싸래기 주자현들 황계(黃鷄) 백계(白鷄) 수백마리가 턱턱하고 꼭꼬우니 너 주자고 닭 굵기랴.” 몽둥이를 들어 매고 “네 이놈 강도놈!” 좁은 골 벼락치듯, 강짜싸움에 계집 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후닥닥 철퓌. “아이고 박 터졌소.” “이놈.” 후다닥. “아이구 다리 부러졌소.” 홍보가 기가 맥혀 몽둥이를 피하느라고 올라 갔다가 내려갔다, 대문을 걸어 놓니 날도 뛰도 못하고 그저 퓌퓌 맞는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구 형수씨 날 좀 살려 주오. 아이구 성수씨 사람 좀 살려 주오.”

(마) [아니리]

이려고 들어가거든 놀보 기집이라도 후해 전곡간에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기집은 놀보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밥 푸던 주걱을 들고 중문에 딱 붙어 서서,

“아니 여보, 아주뽀이고 도마뽀이고 세상도 귀찮아 죽겠다. 언제 나한테 전곡을 갖다 맏졌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하고 뽀을 때려 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如反掌)이오. 성수한테 뽀을 맞아 놓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툭 꺼지던 듯,

(바) [진양]

“여보 형수씨! 여보, 여보, 아주머니, 성수가 시아재 뺨 치는 법은 고금천지(古今天地) 어디 가 보았소.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殺之) 중치(重治) 능지(陵遲) 허여 아주 박살(撲殺) 죽여주오. 아이구 하느님, 박홍보를 벼락을 때려 주면 염라국을 들어가서 부모님을 뵈옵는 날은 세세원정(細細原情)을 아뢰던마는 어이허여 못 죽는 거나.”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의 집으로 건너간다.

82. (가)의 밑줄 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 ① (나) ② (다) ③ (라)
- ④ (마) ⑤ (바)

83. 다음 설명 중 위 내용에 대해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나) : 홍보는 양반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명분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② (다) : 놀보는 돈이 아까워 제사 음식을 아주 조금 장만 하는 사람이며, 홍보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 ③ (라) : 놀보는 점층법을 써서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급기야 홍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린다.
- ④ (마) : 형수는 놀보와 꼭 같은 정도로 심술이 심해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시동생 뺨을 때린다.
- ⑤ (바) : 홍보는 형수에게 맞고서 죽고 싶은 마음을 형수에게 호소하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홍보 듣고 기가 맥혀 놀보 앞에 가 꿰어 엎저, “아이고, 여보 형님. 별안간 나가라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엄동설한풍에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숙제 주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번만 통촉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홍보 기가 맥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들어보오. 형님이 나가라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허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겼소? 자식들을 챙겨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들췌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 지고 놀보 앞으 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소서.” “잘 가거라.” 울며불며 나갈 적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는 네것 내것 다템 없이, 평생의 호의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몰랐더니, 홍보놈의 신세가 일조에 이리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나) 권술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노니, 홍보 자식들이 배가 고파 노니,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저그 어머니를 조르는디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한놈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 나 죽겠소, 밥 좀 주오, 밥 좀 주오.” 또 한놈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거 호박 시리떡 좀 하여 주시오. 그놈이 거 두 가지로 답낸다. 따수면 따수아도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 시리떡이 달지요.” 또 한놈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거 육계장국에다가 흐헌 쌀밥 좀 말아 주시오.” 또 한놈 나왔더니마는, “어머니, 나는 거 영계탕, 생치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누 산적 좀 해 주시오, 먹어 볼라요.”, “어따, 그놈, 입맛도 안다.” 또 한놈 나왔으며, “압따, 그놈들이 음식타령을 하여 노니까 속이 니웃니웃하여 죽겠구려. 나는 아무 것도 말고, 우유차나 한 그릇 뜨끈뜨끈하게 끓여 주시오.”, “아이고, 이놈아, 나는 우유차 이름도 모린다.” 홍보 큰아들놈이 썩 나왔더니마는,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왜 코 안 뚫은 코동부사리 목성음으로 어미를 부르느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허고 날 장가 좀 들여 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거 손자도 안 늦어가요?” 홍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마는,

(다)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우리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개가 여태있으며, 중헌 가장을 헐벗기고, 어린 너희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불이 난다. 이놈들.”

(라)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홍보가 들어오더니마는, “시끄러, 집안에서 예편네가 항시 앙양 울면 재수가 있어 야지, 거. 울지 말오소. 나 오늘 읍에다 좀 가 다녀올라네.” “아니, 읍에는 뭇허로 가신단 말이요?”, “환자심이 나 타다가 자식들 살려내알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에 지금 환자 때먹고 도망간다고 주지 안 헐 터이나 함부레 가지 마시오.”, “응, 요망시럽게. 아, 거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닌가, 그러게? 사구일생 잡고 다니제. 내 갓 좀 내오소.”, “갓은 어따 두었어요?”, “아, 뒤안 귀퉁 속에 두었지.”, “아이고, 어찌 갓은 귀퉁 속에다 두신단 말이요?”, “그런 게 아니라, 신묘년에 조 대비 국상이 났는디, 어떠한 친구 한분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허다고 나다려 곤쳐 쓰라 하데그려. 아, 이 사람아, 내 정상에 지금 갓방에 땀겨 뜨지 해 쓸 수 있나? 꼬시럽에 꼬실러 즐라고 거 귀퉁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따 또 두었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허고

있다, 시방. 닭의장은 장 아닌가? 덕석 구녁에 내 조대도 좀 내오고.” 홍보가 차림채림을 차리는데,

(마) 철대 부러진 현 파립, 조새 갓끈을 달아 써, 편자 떨어진 현 망건, 갓풀 관자, 종이 당줄, 두 통 나게 줄라 매고, 자락 떨어진 현 중추막, 열두 도막 이은 띠 흥복통 눌러 띠고, 세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숭씨로 선초 달아, 활활활활 부치면서, 죽어도 양반이라 여덱 ‘팔’자 걸음으로, 갈 ‘지’자 걸음으로, 이리저리, 저리이리, 이리요리, 어식비식, 내려오다가,

84.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 ① 일상적 구어와 경상도 사투리 구사를 통해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창과 아니리의 반복을 통하여 청중들의 정서를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 ③ 조선 후기의 몰락하는 양반의 실상과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삽입, 첨가, 삭제, 수정되는 판소리 사설의 특성 때문에 적층 문학이라고도 불리운다.
- ⑤ 판소리 사설 중 가장 서민적 취향이 강한 작품이지만, 양반의 말투와 서민의 말투가 뒤섞여 있어서 양반과 서민이 함께 향유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85. 각 부분의 중심 내용과 그에 어울리는 장단을 바르게 연결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은경 : 홍보가 놀보에게 쫓겨나는 장면으로, 홍보와 놀보의 대화로 구성된 아니리 부분이야.
- (나) 성은 : 홍보 자식들의 음식타령 부분으로, 중물이 보다는 빠른 중중물이 장단을 써서 흥취를 돋우면 좋을 것 같아.
- (다) 유진 : 홍보 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창 부분이므로 가락이 느린 진양을 쓰면 효과적이지.
- (라) 여정 : 홍보가 환자섬을 타기 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홍보와 홍보 처의 대화로 구성된 아니리 부분이야.
- (마) 수연 : 홍보의 차림새를 묘사하고 있는 창 부분으로, 빠른 장단이 잣은물이 장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 ③ (가), (다), (마) ④ (다), (라), (마)
- ⑤ (가), (나), (다), (라), (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방울이 떨렁 사령이 예이 야단났지. ㉠홍보가 삼문간을 들여다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거날 홍보 슷한 마음에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 냥 번다. 나도 볼기 까고 옆쳐 볼까. 삼문간에서 볼기 까고 옆쳐 놓니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병영형문배판지후(兵營刑問排判之後)에 볼기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당신 꿏았소?”

“꿏다니 계란이 꿏지 사람도 고나.”

“박 생원 대신이라 하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설흔 냥 받아 가지고 벌써 갔소.”

홍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그 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기가 구 척이요, 기운이 좋습니다. 놀마한 쉬엽에 아조 매를 썩 잘 맞습디다.”

홍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에 우리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궤쇠애비란 놈이 발등거리했구나.”

중모리

번네들 그러헿가.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수번이나 평안히 하소. 내집이라 들어가면 옛 달라고 우는 놈은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 해 주마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허지 그렇지렁 당도허니,

아니리

홍보가 당도커날,

“여보 영감 어디 좀 봅시다 얼마나 맞았소.”

“날 건드리지 마오.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 불성 쇠아들 늬이세.”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좋아라고 얼시구나 절시구 얼시구나 절시구. 영감이 엇그저께 병영길을 떠날 적으, 부디 매를 맞

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 아니 즐거운가 열씨구나 절시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열씨구나 절시구, 어허허, 어얼시구 열시구 열시구 절시구.

홍보도 좋아라고 절굿대 춤을 추면서,

㉢“참 열녀(烈女)다 열녀, 백녀다.”

㉣“여보 영감 죽으나 사나 그래도 형제간밖에 없으니 건너 마을 시숙택에 건너 가서 죽게 된 사정을 여쭙으면 다소 전곡간에 줄 테니 건너가 보시오.”

“이 사람이 건너 갔다가 만일 보리를 주면 어찌나?”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이 사람이 먹는 보리가 아니고 몽둥이 보리 말일세.”

“형제간에 윤기(倫紀)가 있을 때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홍보가 할 일 없이 치장을 차리고 형님 택을 건너가는다,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 치레를 볼 작시면 철대 떨어진 현 파립 버릿줄 총총 매여 조새갓끈을 달아서 떨어진 현 망건 밥풀 관자 종이 당줄 두통나개 줄라매고, 떨어진 현 도포 싹피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 찬 바람에 옆걸음 쳐 손을 불며 가만가만 건너간다.

86. 위 글의 장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정답 2개)

- ① 노래 부분인 ‘창’, 사실을 나타내는 ‘아니리’, 몸짓을 나타내는 ‘발림’,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해 넣는 소리인 ‘추임새’로 구성된다.
- ② 등장 인물들의 대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연극에 가깝다.
- ③ 창자는 극중 인물의 대사를 판소리 음악으로 재현하는 반면 극중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④ 관객은 서술에 직접 개입한다. 고수는 ‘추임새’를 간간히 삽입하여 창자의 흥을 돋우고, 관객의 반응을 유도한다.
- ⑤ 서술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등장인물을 극적인 분위기로 유도하지만, 서술자의 시점과 극중 인물의 시점이 따로 존재하는 다층적 서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87. 밑줄 친 부분 ㉠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나’라는 서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심리 묘사와 내면 의식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②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을 말하는 형태이다.
- ③ 전지적이고 분석적인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사상과 감정 속에 뛰어 들어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기법으로 주인공의 심정과 심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는 기법이다.
- ④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이감을 자아내기 위한 표현에 효과적이다.
- ⑤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88. 역동성을 준비하여 관객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다가 창과 창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① 중모리 ② 자진모리 ③ 진양
- ④ 중중모리 ⑤ 아니리

89. ㉠~㉤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 사회적 계층에 따라 표현 양식이 달랐던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② ㉡ 홍보는 매품마저 제 때 팔지 못하면서 아내를 원망하고 있다.
- ③ ㉢ 「“너의 서방(西方)인지 남방(南方)인지 걸인 하나 내려 왔다.” / “허어 이게 웬 말인가. 서방(書房)님이 오시다니?”」의 표현 기법과 같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 ④ ㉣ 홍보 아내의 운명론적 사고와 의존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희극적 모습이며, 몰락한 양반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당시 서민들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거 ㉠없이 사는 살림에 밤낮 그렇게 눈물만 짜니 먼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 하로 가실라요.” “환자 말은 호방한테 ㉡환자(還子) 섬이나 얻어나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테니 가지마오.”

“구사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좀 내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 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백립(白笠) 갓낱이 단단하다 해서 ㉡름에 ㉢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도포(道袍) 좀 내오오.” “도포는 어디다 두었소.” “장안에 들었지.” “아이고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허허 이사람아 ㉣담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청(秩廳)을 들어가는디,

<자진모리>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치레를 불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먼자 떨어진 헌 망건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뒤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대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아니리>

흥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할망정 반남 박씨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尊敬)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않고 그냥 웃음으로 열리는 수밖엔 없다.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 열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은 폼아 논 돈이요, 마샷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 말고,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나를 내어주지.”

90. ㉠을 위한 장치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91. ㉢의 표현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감 없이 사는 살림에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 ②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름허게 열 한 통만 썬소.
- ③ 가장 매품 팔아먹고 신단 말을 고급천지 어디서 보셨습니

까?

- ④ 모퉁이에서 도적놈에게 짝 빼앗기고 이렇게 매만 실컷 맞았네.
- ⑤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중지 능지를 허여 아주 박살 죽여주오.

92. <보기>는 「공방전」의 일부분이다. ㉠와 같은 행동을 비난할 만한 인물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진(晉) 나라 ㉠화교란 사람이 있었다. 공방의 풍도를 듣고 기뻐하여 사귀어 여러 만 냥의 재산을 모았다. 이로부터 화교는 공방을 몹시 좋아하는 한 가지 버릇을 이루고 말았다. 이것을 본 ㉡노포는 논(論)을 지어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기에 애썼다. 화교의 무리 중에서 오직 ㉢완적(阮籍)만은 성품이 활달해서 속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방(方)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다니면서 취하도록 마시곤 했다. ㉣왕이보(王夷甫)는 한 번도 입으로 방(方)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방을 가리켜 말하려면 그저 ‘그것’이라고 했다. 맑은 의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이렇게 천대를 받았다. 당(唐)나라의 세상이 되었다. ㉤유안(劉晏)이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되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당신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임금께 아뢰어 방(方)을 이용해서 국가의 재용(財用)을 여유 있게 하려고 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93. 다음에 제시한 부분을 통해 판소리 사설인 ‘박타령’의 표현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흥보가 하릴없어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의관을 한참 차려, 모자(帽子) 터진 헌 갓에다 철대를 술로 감아 노갓끈 달아 쓰고, 편자는 줌이 먹고, 앞춤에 구멍이 증증, 관자(貫子)뿔 헌 망건을 물렛줄로 엮어 쓰고, 깃만 남은 베 증치 막을 열 두 도막 이은 술띠로 시장창게 눌러 매고, 헐고 헌 고의 적삼에 살점이 울긋불긋. 목만 남은 길버선에 짚대님이 별자로다. 구멍 뚫린 나막신을 두 발에 잘잘 끌고, 푹 얻어 올 걸로 큼직한 오쟁이를 평양 가는 어떤 이 모양으로 관 뼈 위에 짚어지고 벌벌 떨며 건너갈 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흥보도 좋아라고 절굿대 춤을 추면서, “참 열녀(烈女)다 열녀, 백녀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여보 영감 죽으나 사나 그래도 형제간밖에 없으니 건너 마을 시숙댁에 건너 가서 죽게 된 사정을 여쭙으면 다소 전곡간(錢穀間)에 줄 테니 건너가 보시오.”

“이 사람이 건너 갔다가 만일 보리를 주면 어찌나?”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이 사람이 먹는 보리가 아니고 몽둥이 보리 말일세.”

“형제간에 윤기(倫紀)가 있을 때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홍보가 할 일 없이 치장을 차리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 다,

(나)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떨어진 현 파립(破笠) 버릿줄 총총 매여 조새갓끈을 달아서 떨어진 현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 종이 당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현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 찬 바람에 옆걸음 쳐 손을 불며 가만가만 건너간다.

(다) [㉠] ㉠이러고 들어가거든는 놀보 기집이라도 후해서 전곡간에 주었으면 좋으련마는, 놀보 기집은 놀보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있겠다. 밥 푸던 주걱 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여보. 아주뽀뽀고 도마뽀뽀고 세상이 다 귀찮혀요. 언제 전곡을 갖다 뺐졌던가.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쌀.”

하고 뽀뽀 때려 놓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如反掌)이요. 형수한테 뽀뽀 맞아 놓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툭 꺼지난 듯,

(라) [㉠] 홍보 마누라가 막내둥이를 받아 안고 홍보 오는 곳을 바라보니 건너산 비탈길에서 작지를 짚고 절뚝 절뚝 하고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가지고 오는 듯하거늘 홍보가 당도하니,

“여보 영감 얼마나 가져왔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오.”

“아니 또 맞었구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보오. 형님댁을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분이 어찌 후하던지 전곡을 많이 주시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 너머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놈에게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맛고 왔네.”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며,

94. 윗글의 장르적 특성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판소리는 노래 부분인 창, 사설을 나타내는 너름새, 몸짓을 나타내는 아니리로 구성된다.
- ② 판소리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이다.
- ③ 판소리는 판소리계 소설로부터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전되어 설화로 전한다.
- ④ 고수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고 내용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 ⑤ 판소리 중 추임새는 고수가 창과 창 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이다.

95.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관찰자의 시선을 빌려 등장 인물의 심리와 동작이 묘사되기도 하고, 등장 인물 스스로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② 방이 설화와 구토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판소리 창본이다.
- ③ 홍보의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태도와 무능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작품의 표면에는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나타나 있다.
- ⑤ (다)의 ㉠ 부분은 판소리 광대가 직접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해설하는 부분이다.

96. ㉠에 들어갈 용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 중간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이다.
- ②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이다.
- ③ 가사, 소리, 몸짓이 일체가 되었을 때 일컫는 말이다.
- ④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이다.
- ⑤ 음악적 요소로서 내용 전개가 대화로만 되는 부분이다.

9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외양 모습을 통해서 신분이 천민임을 알 수 있다.
- ② 행동 묘사를 통해서 꼼꼼하고 근엄한 홍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홍보가 명분과 예의 범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⑤ 창과 창 사이에 이야기 식으로 진행되는 사실 부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니리]

심 봉사 하루난 돈케를 만져 보니 엽전 한 푼이 없겠다.

“여 뽕과 돈케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게 웬일이여.”

“아이고 그러니 외정(外丁)은 살림 속을 저렇게 몰라.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떡 사오고 하는 돈이 모도 그 돈 아니요.”

“나 술 고기 떡 많이 잘 사 주더라. 여편네 먹은 것 쥐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영감아 지난 달부터 밥 구미(口味)는 독 떨어지고 신 것만 구미가 당기니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오.”

“과야하하 거 그러면 태기가 있을란가부네. 어찌튼 하나만 낳라. 그런데 신 것이 구미가 당기면 무엇을 먹는가.”

“아 살구 먹었지요.”

“아 씨 되어 보니 닷말 서 되입니다.”

“㉠거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 놈은 낳드라도 안 시건방질가 몰라, 이것 농담이요.” <중략>

“여보 뽕덕이네 황성서 맹인 잔치를 태설하였는디 잔치에 불참하면 이 골 수령이 봉고 과직(封庫罷職)을 당한대요. 그러니 급히 올라가세.”

“아이고 여필종부(女必從夫)라고 영감 따라가지 누구 따라갈 사람 있소.”

“아닌게 아니라 우리 뽕과가 열녀도 더 되고 백녀다 백녀. 자 그럼 우리 올라가세.”

(나) 프록코트를 입어서 전신이 새까맣고 뚱그란 눈이 말뚱말뚱한데, 물 한 잔 조금 마시고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까마귀올시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所懷)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

씀하겠소. 사람들은 만물 중에 제가 제일이라 하지마는, 그 행실을 살펴볼 지경이면 다 천리(天理)에 어기어져서 하나도 그 취할 것이 없소.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일을 모두 다 들어 말씀하려면 너무 지리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효한 것을 가지고 말씀할 터인데, 옛날 동양 성인들이 말씀하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 행실의 근원이라, 효도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으니, 효도라 하는 것은 자식된 자가 고연(固然)한 직분으로 당연히 행할 일이올시다. 우리 까마귀의 족속은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히 하여 망극한 은혜를 갚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분을 지키어 자자손손이 천만 대를 내려가도록 가법(家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옛적에 백나 천이라 하는 분이 우리를 가리켜 새 중의 증자라 하였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자조(慈鳥)라 일컬었으니, 증자라 하는 양반은 부모에게 효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조라 하는 뜻은 사랑하는 새라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하나님의 법이라.

(다) 샌님의 생각으로는 청렴개결(淸廉介潔)을 생명으로 삼는 선비로서 재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어찌 감히 이해를 따지고 가릴 것이나. 오직 예의, 염치(廉恥)가 있을 뿐이다. 인(仁)과 의(義) 속에 살다가 인과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몇몇하다. 백이(伯夷)와 숙제(叔弟)를 배울 것이요, 악비(岳飛)와 문천상(文天祥)을 본받을 것이다. 이리하여 마음에 음사(淫邪)를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재물을 말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 취대(取貸)하여 올 주변도 못 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을 염두에 두는 일이 없다.

9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층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주로 현재형으로 서술되었다.
- ③ 심봉사의 말과 행위를 희화화하여 심봉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일상어를 주로 구사하고 있으나 한자어나 한문투를 혼용하기도 하였다.
- ⑤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9. ㉠과 같은 말하기 방식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 ① 매아미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산채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 ② 어사 왈, “저 농군 여복시, 검은 소로 밭출 가니 킴킴한 게 아니한지?” 농부 대답하되, “그러키의 밝으라고 벗 다 맞지요.”
- ③ 이 골 물이 주룩주룩, 저 골 물이 썰썰 열 골 물이 한테 함수(含水)하여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평퍼져
- ④ 어사또 부채 꼭지로 운봉 옆구리를 콕 찌르며,
“여보 운봉 영감! 거 갈비 한 대 주.”
운봉이 깜짝 놀래며,
“허어, 그 분이 갈비를 달래면 익은 소갈비를 달래지, 사 람의 생갈비를 달랜다 말시오?”
- ⑤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100.(나)는 동물에 정신과 인격을 부여하여 쓴 우화소설이다. 이와 같이 우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문학적 효과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01.(다)의 ‘샌님(딸각발이)’과 <보기>의 ‘이인국’의 성격을 비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인국은 ~한 성격이며, 딸각발이는 ~한 성격이다. 이들 중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형은 ~이다.’)

<보기>

이인국은 일제 때 제국 대학을 졸업한 인물로, 잠꼬대를 일본어로 할 정도로 완전한 황국 신민으로 동화되어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해방 후의 격변기 속에서는 친소파로 돌변하여 영화를 누린다. 1·4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越南)한 그는 미군 주둔시에도 그 상황에 맞는 처세술로 현실에 적응한다. 그는 치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갑절이나 비싼 종합 병원을 운영하면서 철저히 부(富)를 추구한다. 그 특유의 처세술로 브라운 대사를 만족시켜 미 국무성 초청장을 받아 미국에 가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하여 도미(渡美)하기에 이른다.

-전광용의 -꺼삐딴 리

※ 다음 들음에 답하시오.

(가) 홍보가 후원으로 돌아가 박을 통겨본 즉 팔구월 찬 이슬에 박이 짹 짹 여물었었다. 박 한 통을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탈 제, 홍보 내외와 자식들 스물아홉과 서른한 명 권속(眷屬)이 좌우로 늘어서 박을 타는데,

홍보 시르렁 실근 톱질이야, 에이여루 톱질이로구나. 몹쓸 놈의 팔자라다 원수놈의 가난이로구나.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헌디 이놈의 팔자는 어이 허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에이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 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느라, 평생에 포함이로구나.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কে 두 짝을 떨어붓고 단쳐 놔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그뚝하고, 돈과 쌀을 떨어붓고 단쳐 놔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수북하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그뚝하고, 떨어붓고 나면 도로 수북 떨어붓고 나면 도로 그뚝,

홍보가 밥 먹으라고 령을 내리는데,

하니 우-허더니 이놈들이 온 데 간테가 없제.

홍보 아이고 이놈들아 다 어디 갔느냐?

자식들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 이놈들이 밥 속에서 통기처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 속에서 나오는데 하니, 이놈들이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밥 먹어라 소리에 우- 밥 속에가 총철환(銃鐵丸) 백히듯 짹 짹 가지고 당창벌거지 콧속 과먹듯 속에서 먹어 나오 드랍니다. 홍보는 아해들과 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먹을 수가 없어 밥보고 인사를 허는데, 노담(弩談)부터 허든 것이었다.

홍보 밥님, 너 참 본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대면도 허기 실체만은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허거니와 원 사람을 그렇게 팔시헌단 말이냐. 예라, 이손 섭섭타 섭섭해.

(㉠)

홍보 세상 인심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헌들 너같이 심혈소냐. 세도집 부자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먹다 못다 먹으면 도야지 개를 주고 떼거위 학두루미와 심지어 오리 떼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서 쉬네 썩네 허지 않더냐. 날과 무슨 원수되어 사흘나흘 예사 굶어 뱃가 죽이 등에 붙고 갈비대가 따로나서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앓았다 일어서면 두다리가 벌렁벌렁 말라죽게 되었으되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이니 그럴수가 있단 말이냐. 예라, 이 쾌짙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한참 이리 준책(峻責)터니 도로 슬쩍 달래는데,

홍보 호호 그것 참,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노여워 아니 오랴느냐? 어여빠 헌 말이지 미워 헌 말 아니로다. 친구가 조만(早晚) 없어 정지후박(靜之厚薄)에 매였으니 하상견지만만야(何相見之晩晩也)오. 떨어져 살지말자. 아겨아겨 내 밥이야, 옥(玉)을 준들 널 바꾸며 금(金)을 준들 바꾸소냐. 아겨아겨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새 정이 불게 허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렇듯 한참 노담을 허더니만 홍보가 밥을 먹는데, 홍보 집에 숟가락은 본래 없거니와 하도 좋아서 손으로 밥을 뭉쳐 공중에 다 던져 놓고 죽방울 받듯 입으로 밥을 받아 먹는데 입으로 받아만 놓면 턱도 별로 놀리잖고 역께 주춤 눈만 끄적이면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다치는 것이었다.

(㉔)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 놓고 받아먹고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배가 점점 불러 오니 손이 차차 늘어진다. 던져놓고 받아 먹고…….

(나) 화왕(花王)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향기로 온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싸 보호하였는데, 삼춘佳節(三春佳節)을 맞아 예쁜 꽃을 피우니, 온갖 꽃보다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비러 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맑은 정기를 타고 난 탐스러운 꽃들이 다투어 모여 왔다.

문득 한佳人(佳人)이 앞으로 나왔다. 붉은 얼굴에 옥같은 이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입고 아장거리는 무희(舞姬)처럼 압전하게 화왕에게 아뢰었다.

“이 몸은 백설의 모래 사장을 맑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는 목욕하여 몸의 먼지를 씻었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임금님의 높이신 덕을 듣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몸을 받아 주실지요?”

이 때 배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는 흰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백두옹(白頭翁)입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옵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膏粱)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임금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리짝에 저장해 둔 양약(良藥)으로 임금님의 기운을 돕고, 금석(金石)의 극약(劇藥)으로써 임금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비록 사마(絲麻)가 있어도 군자 된 자는 관괴(菅蒯)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화왕께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는데, 임금님께서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화왕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가인을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어찌할꼬?”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제가 온 것은 임금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오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 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 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낭관(郎官)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오니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화왕은 마침내 다음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다)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 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 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걸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102. 다음 (가)의 ㉓ ~ ㉕에 들어갈 판소리 장단을 그 순서대로 가장 알맞게 나타낸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 ② 아니리, 진양조, 중중모리
- ③ 자진모리, 아니리, 휘모리
- ④ 아니리, 휘모리, 진양조
- ⑤ 휘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103. 다음 (가)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과 풍자적 어조로 특정 대상을 규탄하고 있다.
- ② 모순된 현실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 ③ 살아가면서 가난을 느끼지 않고 일상에 안주하며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흥보의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④ 해당 장면의 정감을 극대화시키고 해학을 통해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 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생활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책이 나타나 있다.

10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체 설화로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 ③ 교훈의 목적으로 창작되어 계세징인(戒世懲人)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우의적 수법으로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 ⑤ 우리 나라 최초의 창작 설화이다.

105. (나)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천하 엇씨야 적당 말고 어와 저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가미 고어홀가
- ② 淮회陽양 네 일흥이 마초야 ㄹ시고, 汲급長장孺유 風풍彩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 ③ 眞眞珠珠館館 竹竹西서樓樓 五五十十川川 천 너린 물이 태태白白山山 그림자를 東東海海히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漢江江의 木木覓覓의 다히고저.
- ④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詩仙仙은 어더가고 咳咳唾唾만 나맛느니 天천址址間間 壯壯한 別別 즈셔히도 홀셔이고.
- ⑤ 江江湖湖호에 病病이 깊퍼 竹竹林林님의 누엇더니, 關關東東

八팔百百 里리에 方方面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聖恩은이야 가디록 罔罔極極극하다.

106. (다)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 ① 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자세
- ②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경계
- ③ 깨끗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 권장
- ④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비판
- ⑤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세태 비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갓은 중몰이]

놀보 심사 불작시면, 술 잘 먹고 삼 잘하기, 대장군방 멀목시켜, 오귀방에 이사 권코, 삼살방에다 집 짓기고, 남의 노적에 불 지르고, 불 붙는 디 부채질, 새 초분에도 불지르고, 상인 잡고 춤추기와, 소대상으 주정 내여 남의 젓상 깨뜨리고, 질 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 다 지며는 내어 쫓고, 의원 보며는 침 도적질, 지관 보며는 쇠 감추고, 새갓 보면 땀때 떼고, 좋은 망건 편자 꿇고, 새 메투리는 앞총 타고, 만석 당허 윤디 꿇고, 다큰 큰애기 겁탈, 수절 과부 무함 잡고, 음녀 보며는 칭찬허고, 열녀 보면 해답허기, 돈 세난디말 묻기와, 글 써는디 옆 쭈시고, 사집병으 비상 넣고, 제주병에다 가래춤 뵈고, 용구 진 놈 가래 뜨고, 사그짐은 작대기 차고, 우는 애기는 발구락 빠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새암 가상이 허방을 놓고,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곰사동이는 되집아 놓고, 앓은뱅이는 태견하고, 이런 육시를 헐 놈이 심술이 이래 노니, 삼강을 아느냐, 오류를 아느냐? 이런 난장을 맞을 놈이!

[] 심술이 이래 노니, 삼강 오류를 알며, 형제 윤기인들 알 리가 있겠느냐? 하로는 이놈이, 비 오고 안개 다 뻥 찢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가지고 제 동생 흥보를 부르는데, “네 이놈, 흥보야!” 흥보 감짝 놀래, “형님, 저를 불러줬습니까?”, “오냐, 너 불렀다. 너 이놈, 네 자식들 장개를 보냈으면 손자를 멧을 놓쳤겠니? 너 이놈, 늙어 가는 형만 믿고 집안에서 헐일 하나 없이 되똥되똥 슬슬 돌아다니는 게 내 눈궁둥이가 시어 보아 줄 수가 없구나. 요놈. 오날부터서는 네 계집, 자식 썩 다리고 나가부러라!”, “아이고, 형님.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고 무엇이고 쓸데없이, 썩 나가! 너, 내 성질 알제, 잉! 만일 안 나가서는, 이놈, 살륙지환이 날것이다, 이놈. 썩 나가!”

[중몰이] 흥보 듣고 기가 맥혀 놀보 앞에 가 꿇어 엌저, “아이고, 여보 형님. 별안간 나가라 허니 어느 곳으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가오리까? 이 엄동설한풍으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숙제 주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번만 통촉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홍보 기가 맥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들어 보오. 형님이 나가라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졌소? 자식들을 챙겨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들쨍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 지고 놀보 앞으 가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소서.”, “잘 가거라.” 울며불며 나갈 적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 생전으는 네것 내것 다툼 없이, 평생으 호의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몰랐더니, 홍보놈의 신세가 일조에 이리 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중략>

[아니리] 그렇저렇 돌아다닐 적에, 고을에를 찾아 들면 객사, 동대청에도 좌기를 하여 보고, 빈 물방아실에도 좌기를 하여, 마누라 시켜 밥 얻어오면 고초장 아니 얻어왔다고 담뱃대로 때려도 보고. 홍보가 이렇게 풍마우습을 겪일 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저렇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했는데, 일간 초옥이 비었거늘, 그 동네 사람들이 홍보 내의를 인권하여 거다가 몸을 잠시 의탁하여 있을 적에, 홍보 내외 금실은 좋던가, 자식들을 낳았으되, 갑부기 하나 없이 아들만 똑구 형제를 조롯이 낳았었다. 권술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노니, 홍보 자식들이 배가 고파 노니,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저그 어머니를 조르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한놈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 나 죽겠소, 밥 좀 주오, 밥 좀 주오.” 또 한놈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거 호박 시리떡 좀 하여 주시오. 그놈이 거 두 가지로 답낸다. 파수면 파수아도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 시리떡이 달지요.” 또 한놈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거 육계장국에다가 흐현 쌀밥 좀 말아 주시오.” 또 한놈 나왔더니마는, “어머니, 나는 거 영계탕, 생치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누 산적 좀 해 주시오, 먹어 볼라요.”, “어따, 그놈, 입맛도 안다.” 또 한놈 나왔으며, “아빠, 그놈들이 음식타령을 하여 노니까 속이 니웃니웃하여 죽겠구려. 나는 아무 것도 말고, 우유 차나 한 그릇 뜨끈뜨끈하게 끓여 주시오.”, “아이고, 이놈아, 나는 우유차 이름도 모린다.” 홍보 큰아들놈이 썩 나왔더니마는,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왜 코 안 뚫은 코동부사리 목성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느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날 장가 좀 들여 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거 손자도 안 늦어가요?” 홍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우리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개가 여태 있으며, 중헌 가장을 헐벗기고, 어린 너희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

는 어미 간장이 불이 난다. 이놈들.”

[아니리]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홍보가 들어오더니마는, <중략> 나 오늘 읍에다 좀 가 다녀올라네.” “아니, 읍에는 뭇허로 가신단 말이요?”, “환자섭이나 타다가 자식들 살려내알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에 지금 환자 떼먹고 도망간다고 주지 안 헐 터이나 함부레 가지 마시오.”, “응, 요망시럽게. 아, 거 무슨 일을 꼭 밧고 다니는가, 그러게? 사구일생 잡고 다니제. 내 갓 좀 내오소.”, “갓은 어따 두었어요?”, “아, 뒤안 귀퉁 속에 두었지.”, “아이고, 어찌 갓은 귀퉁 속에다 두신단 말이요?”, “그런게 아니라, 신묘년에 조 대비 국상이 났는데, 어떠한 친구 한분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허다고 나다려 곤쳐 쓰라 하데그러. 아, 이 사람아, 내 정상에 지금 갓방에 맴겨 뜨지 해 쓸 수 있나? 꼬시럽에 꼬실러 쓸라고 거 귀퉁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따 또 두었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허고 있다, 시방. 닭의 장은 장 아닌가? 덕석 구녕에 내 조대도 좀 내오고.” 홍보가 차림채림을 차리는데,

[жат은몰이] 철대 부러진 현 파립, 조새 갓끈을 달아 써, 편자 떨어진 현 망건, 갓풀 관자, 종이 당줄, 두 통 나게 줄라매고, 자락 떨어진 현 중추막, 열두 도막 이은 띠 흥복통 눌러 띠고, 세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승씨로 선 초 달아, 활활활활 부치면서, 죽어도 양반이라 여덱 ‘팔’자 걸음으로, 갈 ‘지’자 걸음으로, 이리저리, 저리이리, 이리요리, 어식비식, 내려오다가,

[아니리]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었다. “환사 호방하고 인사할 일이 걱정이며, 하소를 하자니 나는 반남 박가 양반인디 내가 아식 밧지졌고, 하소를 하자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요, 이 일을 어찌꼬”하고 내려가다가 제 손수 자다 꿈 깨듯 허졌다. “옳다, 생각했다. 내가 웃음으로 좀 따져 볼 밖으.” 질청 안을 썩 들어서니 아전들이 우 일어나며, “아니, 이거여 박 생원 아니시오?”, “헤헤헤, 알아맞혔구만 알아맞혀. 거 너 아이락하디? 환사 호방 다 덕내나 평안하시고? 헤헤헤.”, “예, 우리야 다 편소마는, 박 생원 백씨장 기운 안녕하시요?”, “헤헤헤, 우리 형님이야 여전하세제, 헤헤헤헤헤.”, “아니, 박 생원 어찌 오셨소?”, “환사 호방한테 문의가 있어 왔지마는 거 들으실지 앓을지 모르지, 헤헤헤.”, “무슨 문의요?”, “권술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섭이나 주시면 갓다 먹고 가을에 착실히 갓어 드리지요마는, 거 주실지 앓을지 모르지, 헤헤헤헤헤헤.”, “아, 박 생원 백씨장이 부잔디 환자 자신단 말이 웬 말이요?”, “형님의 것이라도 너머

여러번을 갖다 먹고 보자니까, 헤헤, 염치가 없더구만, 헤헤헤헤헤.”, “그러실 것이요. 박 생원,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 보실까요?”, “아, 돈 생길 품이면 팔고말고.”, “박 생원 곤장 여나뭇 맞아 보실까요?” 흥보가 곤장 말을 듣더니마는 췌바닥이 뺨돌이채 돌아 단듯 하겠다. “아, 여보, 고을이라 찾아오니깐 별안간 곤장 말이 웬말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만 맞으면 매삿은 한개에 석냥씩, 열개면 서른냥이요, 여그 누구든지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삿 닷냥까지 제직해 났으니, 그 일 한번 해 보실까요?”, 흥보가 곰곰 생각을 해 보니 돈 삼십냥을 가졌으면 일년 용이 풍족하고, 돈 또 닷냥을 가졌으면 우선 호기가 될 듯하야, “여보시오, 그 일 어긋나잖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 없고 정갱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나 그 돈 닷냥 내 주시오.”, “아, 글랑 그리 하오.”

107. 위와 같은 글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변화가 누적되어 이루어진 축적문학이다.
- ② 문학의 세 유형인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보여주기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 ③ 근원 설화를 가지고 있으며 해학적 골재미가 가득 담겨 있다.
- ④ 조선 후기 서민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서민층, 중인층, 양반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향유되었다.
- ⑤ 주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치밀한 문어체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108. 윗글의 이해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보가 흥보를 내쫓는 작품의 발단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당시의 윤리 위주의 가치관을 누르고 새로운 물질 위주 가치관이 득세해 나가기 시작하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
- ② 흥보 자식들의 음식 타령은 자식들의 철없음을 부각시켜 흥보의 궁핍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군.
- ③ 환자를 빌리러 가는 흥보의 차림새 묘사를 통해 몰락하고 빈한한 처지이지만 양반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체면과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흥보의 성격을 엿볼 수 있어.
- ④ 흥보가 호방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매품을 팔기로 하는 대목은 현실의 부조리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 후기

하층민들이 처한 절대 빈곤의 현실을 짐작하게 해.

- ⑤ 흥보와 놀보의 인간상을 통해 무력한 서민을 일깨우기 위한 지배 집단의 고뇌와 갈등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109. 윗글의 <잡은 중물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학의 세 유형 중 노래하기에 해당하며 3·4조, 4·4조의 운문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
- ② 가장 느린 소리로 사설의 극적 전개가 느슨하고 서정적인 대목에서 흔히 이 장단이 쓰인다.
- ③ 어미의 활용이나 조사 등에서 전라도 방언이 지닌 특색이 드러나 있다.
- ④ 열거와 과장으로 놀부의 심술을 나열함으로써 장면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 ⑤ 창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 있다.

110.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제주여자를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윗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1) [정답] ④
[해설] 우회적인 표현의 시는 '하어가'이며 '단심가'는 직설적 표현이 쓰였다.
- 2) [정답] ③
[해설] '하어가'는 시류에의 영합을 권유하고, 함께 조선 왕조를 건설하자고 회유하기 위해서
- 3) [정답] ④
[해설] 각 장은 4음보이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또한 시대상 고려 말에 지어진 고전 시조이다.
- 4) [정답] ③
[해설] '단심가'에서는 변함없는 절개와 일편단심,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드러난다.
- 5) [정답] ⑤
[해설]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우리도'의 경우 3음절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6) [정답] ④
[해설] 작품 속 현실과 독자가 처한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한다.
- 7) [정답] ⑤
[해설] '하어가'에서 '우리'는 이방원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현실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 8) [정답] ③
[해설] 이 시기는 고려 말, 새 왕조를 세우자는 사람들과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하던 시기이다.
- 9) [정답] ⑤
[해설] 서로 함께 뜻을 모으는 모습을 첩덩굴이 얽혀진 것에 비유하였으며 직설적인 말로 의도를 내비치지 않았다. 나머지는 '단심가'에 대한 설명이다.
- 10) [정답] ④
[해설] 4음보의 시조로 '이 몸이 / 죽어죽어 / 일백 번 / 고쳐 죽어.'로 읽는 것이 적당하다.
- 11) [정답] 일편단심
[해설] 고려 왕조 또는 공양왕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 12) [정답] ③
[해설] 첩덩굴이 얽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얽혀져서 한평생을 누려 보자는 뜻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 13) [정답] ④
[해설] '하어가'는 정몽주에 대한 회유와 설득으로 우회적 표현이 쓰였다. 반면 직설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의 시는 '단심가'이다.
- 14) [정답] ⑤
[해설] '단심가'는 초장과 중장에는 반복법, 종장에는 설의법이 사

- 용되었으며 명분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어가'이다.
- 15) [정답] ⑤
[해설] '하어가'는 시류에의 영합을 권유하고, 함께 조선 왕조를 건설하자고 회유하며 명분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따르고자 한다.
- 16) [정답] ④
[해설] (가)의 화자는 비유를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에 대한 영합을 권유하고 있다.
- 17) [정답] ③
[해설]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고, 고려에 대한 충절과 두 왕조를 섬기지 않으려는 신념을 드러내고자 한다.
- 18) [정답] ①
[해설] 작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은 고려의 국운이 쇠하고 조선을 새롭게 건국하려던 때로 '하어가'의 작가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 19) [정답] ②
[해설] 이방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조선 왕조 건설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 20) [정답] ③
[해설] 정몽주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고려의 국운 회복에 힘쓰고 있다.
- 21) [정답] ⑤
[해설] '단심가'는 일편단심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고 직설적으로 강조하였다.
- 22) [정답] ④
[해설] 작품이 창작된 시기나 창작 배경을 알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23) [정답] ③
[해설]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하려는 의도만 있을 뿐이지, 고려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 24) [정답] ⑤
[해설] 두 시조는 평시조이며 정형시에 속하며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갖는다.
- 25) [정답] ④
[해설] '만수산'에는 만수무강(오래도록 편안하게 인생을 즐긴다.)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시어를 변경하였다.
- 26) [정답] 일편단심
[해설] '일편단심'은 정몽주의 고려 임금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을 표현한 말이다.
- 27) [정답] ⑤
[해설] 이방원의 '하어가'에 대한 정몽주의 화답시가 '단심가'이다.
- 28) [정답] ④
[해설] ㉠은 국운이 기울어 가는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의미한다.

29) [정답] ③

[해설] 이방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조선 왕조 건설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0) [정답] ②

[해설] 명분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따르고자 하는 삶을 엿볼 수 있다.

31) [정답] ③

[해설] 서로 함께 뜻을 모으는 모습을 칩덩굴이 얽혀진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32) [정답] ④

[해설] 고려 말,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방원과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정몽주의 작품이다.

33) [정답] ③

[해설] 단심은 단절된 마음이 아니라 총성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일편단심의 지조를 강조한다.

34) [정답] ①

[해설] 두 시조는 평시조이며 정형시로 3장 6구 12음보로 되어 있다. 또한 각 장은 4음보이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35) [정답] ②

[해설] 칩덩굴이 얽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얽혀져서 한 평생을 누려 보자는 희유이다.

36) [정답] 우리도, 임 향한

[해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37) [정답] ①

38) [정답] ②

[해설] 공습과 관련하여 만도가 한쪽 팔을 잃은 곳이므로 연합군의 공격에 안전한 곳이라 보기 어렵다.

39) [정답] ③

40) [정답] ③, ⑤

[해설] 일제 시대의 가혹한 강제 노동의 모습과 관련된 속담을 찾도록 한다. ①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정답] ①

[해설] 만도는 불구의 몸 때문에 생긴 아픈 기억도 웃음으로 넘겨 버리는 털털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그의 이런 낙천적인 성격은 그가 앞으로 닥칠 어떤 비극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42) [정답] ②

[해설] 만도가 길을 가는 과정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함으로써 시간이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주며, 아들을 만나러 가는 만도의 기

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

43) [정답] ③

[해설] 만도는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진 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물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했고 그러려면 한쪽 팔이 없는 불구의 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만도는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

44) [정답] 언젠가

[해설] (다) 단락에서는 회상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언젠가'는 만도가 외나무다리를 조심히 건너게 된 과거의 기억이 시작된 부분이다.

45) [정답] ①

[해설] '문둥이'는 원래 나병 환자를 뜻하는 말로, 경상도 지방에서 반가운 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이다. 이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6) [정답] ②

[해설]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는 언짢았던 마음이 풀린다는 뜻으로 주막의 역할을 알 수 있다.

47) [정답] ③

[해설] '들머리'는 위 글에서 '입구, 들어가는 맨 첫 머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48) [정답] 그러나, 딱했다.

[해설] 만도의 이런 처지에 대해 서술자는 '참 딱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49) [정답] ①

[해설]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구성이 긴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위 글에서는 사투리를 통해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경상도 지방임을 알 수 있다.

50) [정답] ②

[해설] 만도의 외양 묘사를 통해 만도의 평소 투박하고 소탈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51) [정답] ③

[해설] 위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 외나무다리를 부자가 함께 건너는 장면은 화합과 협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52) [정답] 곱빼기로, 잉?

[해설] (나) 단락에서는 만도가 속이 풀리면서 진수를 위해 국수를 시킨다. 이때 더 많이 주려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53) [정답] ①

[해설] 글 (나)에서 만도는 병원에서 돌아온다는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

54) [정답] ②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55) [정답] ③
[해설] '수난 시대'는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아버지와 6.25 전쟁 시대를 살고 있는 아들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된 수난을 다룬 작품이다. 위 부분에는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게 된 아들을 만난 아버지 만도의 충격이 제시되어 있다.
- 56) [정답] ④
- 57) [정답] ②
[해설]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서술로 만도와 진수 부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부자가 겪는 비극을 제시하고 있다.
- 58) [정답] ③
[해설] (가)에서는 진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가 버렸던 만도가 (나)에서는 진수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 59) [정답] ④
[해설] 글 (다)에서 진수는 만도가 내놓은 해결 방안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0) [정답] ⑤
- 61) [정답] ②
- 62) [정답] ③
- 63) [정답] ①
- 64) [정답] ③
[해설] '정거장 대합실'은 만도에게 일제 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갔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65) [정답] ②, ⑤
[해설] 짧은 문장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주어 진수를 마중 가는 만도의 들뜬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66) [정답] ⑤
[해설]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①수필, ②논설문, ③시, ④설명문
- 67) [정답] ④
[해설] (다)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 68) [정답] ②
[해설] 작가는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의 화합으로 이겨 낼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 69) [정답] ④
[해설] @은 아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절규이다.
- 70) [정답] ①
- 71) [정답] ④

- [해설] 만도는 진수가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마음에 진수를 앞세우는 것이다.
- 72) [정답] ③
[해설] 만도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빨리 걷는 것은 다리를 다친 진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73) [정답] '수난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에 걸친 수난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를 의미한다.
- 74) [정답] ③
[해설] 한쪽 다리가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걱정하는 진수에게 만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도와가며 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를 지닌 ③과 관련이 있다.
- 75) [정답] ①
- 76) [정답] ⑤
[해설] @에는 의인법이 쓰였다. ①은 대유법, ②는 은유법, ③은 역설법, ④는 반복법, ⑤는 의인법이 쓰였다.
- 77) [정답] ⑤
[해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현대의 수난사를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78) [정답] ①
[해설] 위 글은 소설로,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인물이나 사건 등은 작가가 꾸며 낸 허구이다.
- 79) [정답] ②
[해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를 통해 아들이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이 도착할 시간이 멀었음에도 만도가 서두르는 이유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기쁨 때문이다.
- 80) [정답] ③
[해설] 만도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니 한쪽 팔을 잃는 자신처럼 불구의 몸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 81) [정답] 전사
[해설] '전사'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는다는 뜻으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 즈음을 알 수 있다.
- 82) ④
- 83) ①
- 84) ①
- 85) ④
- 86) ④, ⑤

- 87) ③
- 88) ⑤
- 89) ④
- 90) ⑤
- 91) ④
- 92) ②
- 93) 유쾌한 상황은 물론 비장하고 슬픈 장면에서도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다. (해학성)
- 94) ⑤
- 95) ②
- 96) ①
- 97) ③
- 98) ⑤
- 99) ③
- 100)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교훈적, 계몽적 효과가 크다.
- 101) 딸각발이는 청렴결백한 성격으로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으나, 이인국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처세술에 능한 성격이다. 이들 중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형은 이인국처럼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딸각발이처럼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는 않는 인간형이다.
- 102) ③
- 103) ④
- 104) ②
- 105) ④
- 106) ①
- 107) ⑤
- 108) ⑤
- 109) ②
- 110) 아니리